

檀君系 教團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김 현 경(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강사)*

임 상 임(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

宗教行動은 그것이 宗教的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象徴的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宗教服飾에 있어서 특히 儀禮服飾은 의식을 행할 때의 공경스러운 마음의 외적인 표현 수단임은 물론 종교의 教理·思想 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시된다. 때문에 각 종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개별 종교의 의례복식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의례복식을 통하여 한국 新宗教 思想을 이해하고자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단군계 12 교단 즉, 대종교, 단군성전천진전, 광명도, 한얼교, 단단학회, 대종교영암시교당, 태극사상통일원본부, 삼성궁, 삼신도, 단군교종무청, 삼진도, 선덕학회를 대상으로 하여 의례복식의 名稱, 構成, 形態, 色相 등 儀禮服飾의 特徵을 考察하였다.

연구 방법은 경전과 문헌, 선행 논문 등의 자료와 직접방문, 면담, 사진 촬영 등 실례 조사를 통하여 현재 착용되는 儀禮服飾을 실증적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단군계 대다수 교단은 의례복식을 제정하고 있으며 의례복의 명칭은 제복, 예복, 정복, 법의, 법복, 도복, 도의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관모는 제모, 수건, 모자, 유건 등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명칭 없이 착용하고 있는 교단도 많다.

의례복식의 구성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남·녀 교도들이 기본복으로 한복이나 양복을 입으며 그 위에 포와 두식을 착용하고 있다. 착용 유형은 남자는 기본복(한복) 위에 포를 입고 관모를 착용한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는 기본복(한복)만을 착용한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태극사상통일원본부와 선덕학회에서는 양복이나 평상복을 입고 있다.

기본복으로 착용하는 한복은 전통적인 형태이며 그 위에 착용하는 表衣는 남자는 窄袖周衣型直領袍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窄袖直領袍, 廣袖周衣型直領袍, 大襟衣型直領袍, 道袍型直領袍, 廣袖深衣型曲領袍, 窄袖帖裏型直領袍, 麻古子型,

袈裟型, 원피스型, 케이프型 등 다양한 형태도 있으며, 여자는 廣袖直領袍, 大襟衣型直領袍, 道袍型直領袍, 廣袖深衣型曲領袍, 窄袖帖裏型直領袍, 褙子型, 袈裟型, 케이프型 등의 表衣를 입고 있다. 관모의 형태는 남·녀 모두 上古時代의 弁型이 가장 많으며, 남자는 坎頭型, 巾型, 儒巾型 등이 보이고, 여자는 坎頭型, 巾型 등이 있다.

의례복식의 색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白色이 가장 많이 보이며, 남자는 陰陽五行의 색상인 靑, 赤, 黃, 黑色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 靑, 紫朱, 白靑(하늘)色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의례복식에서는 靑, 赤, 黃色이 많이 보이며 그 외 紫黃, 白靑(하늘)色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몇몇 교단에서는 陰陽五行의 方位와 色相으로 그 역할과 지위가 구분되고 있다.

檀君系 儀禮服飾에는 天·地·人思想, 陰陽五行思想, 民族主義思想 등이 象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